

# 스타벅스마저 손 들었다... 우울한 광주 충장로 상권

왕자관·유생촌 이어 불패의 '별다방'도 코로나 경영난에 지난 8월 폐점  
금남로·충장로 중대형 매장 공실률 26%로 광주 평균보다 10%나 높아  
충장로상인회, 옛 무등극장에 16층 주상복합 추진 등 상권 살리기 고심

일명 '별다방'으로 불리며 불패신화를 써온 스타벅스가 '광주 충장로점'을 영업 10년만에 최근 문을 닫았다.

우후죽순 생기는 카페들이 문을 닫을 때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손님들로 바글대는 스타벅스조차 충장로 구도심 쇠퇴에선 버티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9년 74년 역사의 중화요릿집 '왕자관', 지난해 40년 명맥의 경양식 식당 '유생촌' 등이 줄줄이 폐업한데 이어 인기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까지 문을 닫으면서 충장로·금남로 상권 쇠퇴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충장로 충장파출소 앞 스타벅스 충장로점이 지난달 13일자로 폐점했다. 매장에는 과거 스타벅스 간판이 있던 흔적만 남아 있으며 가게 안은 텅 빈 채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을 뿐이다.

스타벅스는 '충성 고객'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1999년 처음 국내에 들어왔을 당시부터 고급화 전략과 특유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서비스, 상품화 등으로 '커피와 함께 경험과 공간을 파는 곳'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벅스조차 충장로의 추락을 빚겨날 수 없었다.

해당 매장은 과거 광주시민들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로 꼽혔던 일명 '충과' (충장파출소) 인근

에 있어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곳이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경영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을 닫기 직전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30여% 떨어진 것이 매장을 운영한 업주의 폐점 이유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유동인구가 사라져 손님 발길이 뜸 끊겨버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 4월 29일 기준 m<sup>2</sup>당 1105만원이었으며, 임대료는 월 950만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임대료마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장로·금남로는 과거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이었으나 최근 수년간 공실률이 치솟고 오래된 '노포'마저 문을 닫는 등 상권 쇠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로 이날 둘러본 충장로에는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관리금 없음' 문구까지 내건 경우도 적지 않았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충장로·금남로 지역 중대형매장 공실률은 25.8%에 달했다. 광주 전체 중대형매장 공실률 15.3%보다 충장로 공실률이 10% 가량 높은 수치다.

이 지역 공실률은 2분기 기준 2019년 15.2%→2020년 19.8%→2021년 23.5%→2022년 25.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규모매장 공실률 또한 2분기 기준 2019년 4.9%→2020년 4.9%→



1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충장파출소 인근에 있던 '스타벅스' 매장이 폐점해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2021년 3.7%→2022년 13.7%로 뛰었다.

상인들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상권 쇠퇴로 충장로·금남로를 찾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높은 공실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거 충장로·금남로에서 가게를 차리려면 50평 기준 관리금만 3~5억원, 임대료 월 2000~300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현재는 임대료가 30% 가량 깎여나가고 관리금마저 없어졌지만 여전히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객 성향의 변화도 원인으로 꼽혔다. 매장에서

는 상품 구경만 한 뒤 실제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손님들이 많아져 오프라인 매장은 '전시장'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신축 건물이 부족하고 30년 전 지어진 노후 건물이 많아 신규 상인들이 입점을 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후 건물에 새 매장을 차리려면 리모델링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충장로·금남로 상업용 건축물은 총 647동이며 이 중 53.3%인 345동이 30년 이상 된 건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일성 충장로 1·2·3가 상인회장은 "충장로·금남로 상권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무등극장 건물을 매입, 충장로 '랜드마크'로 삼을 만한 1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등 상권 활성화 계획을 진행 중이다"며 "한때 광주의 상징과도 같았던 충장로와 금남로 상권이 더 이상 침체하도록 지켜볼 수 없다. 광주시민과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마약 밀수입 국내 유통 베트남인 2명 구속

### 광주본부세관, 검찰에 송치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동남아인들 이 구속됐다.

광주본부세관은 14일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P씨(25세)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를 과자류와 함께

택배상자에 포장한 후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과 구조가 유사하고, 대마의 5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P씨 등이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12.6kg(5억 1000만원 상당)으로, 이들은 국내 반입과정에서

30개가 넘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광주세관은 지난달에도 동남아에서 3억 70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7.5kg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내국인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김양관 광주세관 조사과장은 "최근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증가하고 전자담배 형태로 휴대와 흡입이 쉬워지면서 광주·전남지역으로 합성대마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소량 개인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아내 살해 중국인 남편 징역 25년 선고

법원이 주시신패로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 50대 남성에게 25년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15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순천의 자택에서 흉기로 중국인 아내 B(여·51)씨의 목을 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씨는 사건 발생 2~3년 전부터 아내 몰래 중국 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을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다음날 농장 퇴비창고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아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방법 등이 매우 잔혹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원심을 확정 판결을 유지했다.

## 여수경찰서 주차장서 성범죄 피의자 도주

### 한 손에만 수갑 등 감시 소홀

성범죄 피의자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5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성범죄 혐의로 붙잡힌 남성 A(21)씨가 한쪽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영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오랜기간 A씨를 추적해 14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도 시흥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여수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도주 당시 현장에는 3명의 경찰이 있었으나 A씨가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결과 A씨는 한 손에만 수갑을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송과정에서 헐거워진 수갑에서 스스로 손을 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CCTV로 A씨를 추적하는 한편 기동대를 동원해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 강진서 예초기 사고로 60대 숨져

예초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15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의 한 주택 부엌에서 A(63)씨가 목에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날 A씨와 통화를 하던 주인이 평소와 다른 A씨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끼고 집을 찾아갔다가 마당

에 밧자국이 묻은 예초기가 작동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홀로 살고 있는 A씨의 방안에는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에는 '사는 것이 힘들다',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등이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현장 감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

## 회사 사정상, 매매

-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합,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